

목포시, 작은 도서관 기능 축소 '논란'

주 6일 개관→5일로...하루 운영 10시간→5시간으로
인력도 줄어 프로그램 위축...저소득층 문화소의 우려

목포시가 '1개동 1작은도서관' 시대를 앞두고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운영시간도 대폭 축소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목포시는 지난달 20일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운영시간과 운영인력을 축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 6일 이상 개관'이 '주 5일 개관'으로 바뀌고 운영시간도 '1일 10시간'에서 '1일 5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은 타났다.

무엇보다 '운영 인력'과 관련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기존 조례에는 '운영인력은 관리자 1명과 유급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유급자원봉사자의 월 근무시간은 59시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로 바

뀌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둘 수 있다'는 강제성을 띤 의무가 아니라 임의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조례안대로 개정되면 관리자 인건비가 연간 5억6000만원에서 2억8900만원으로 줄어들어 2억7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인력축소로 인해 기존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해 오던 각종 프로그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작은도서관에서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라이스클리어(떡 아트), 창의 로봇 만들기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연간 15만 명의 어린이들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목포시의원은 "목포지역 18개 작은도서관에는 연간 8억원(지난해 기준)의 운영비가 지원돼 1곳당 적게는 연간 20개에서 많게는 9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운영 인력이 줄면 프로그램도 덩달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신구 도심간 작은도서관 이용 계층의 편차가 심해 소득 빈곤층 자녀들의 상대적 문화소외가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지



목포시가 관내 18개 작은도서관 개관을 주 6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운영시간도 하루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이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원도심의 한 작은도서관 내부 모습.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적이 나온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설치'도 논란 대상이다.

기존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에서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된다. 이는 의무 규정에서 선택 규정으로 바뀌는 것으로, 즉 안 할 수도 있게 돼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목포시의 조례 개정 추진은 지난해 제34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같이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프로그램 다양화와 운영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던 것과 정면 배치돼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목포시 관계자는 개정 이유에 대해 "2018년 조례 규제개선 추진과제 30선 발굴 과제중 하나"라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하므로 운영기준을 개정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조성 박차 관광 등 5대 분과 정책 자문단 만든다

전략·현안사업 조기 발굴

목포시는 올해 시정 최우선 목표로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조성'을 내세운 가운데, 그 첫 조치로 각 분야별 '전문가 정책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3일 밝혔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민선 7기 출범 초부터 4차 산업시대 목포를 먹여 살릴 3대 먹거리로 '관광,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을 역설해왔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조직만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엔 다소 전문성이 부족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우선적으로 목포시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사업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현안 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적기 추진을 위해 정책자문단부터 구성하게 됐다

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정책 자문단은 3대 먹거리 산업(관광, 신재생에너지, 수산식품)에

'시민안전과 도시환경'이 더해진 5대 분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은 관련 기관·대학·민간기업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분과별 10명 이내다.

구체적 구성안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과는 에너지산업, 지역경제, 산업혁신,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해양수산 분과는 항만, 수산식품, 수산물가공, 해양환경 등 4개 분야, 문화관광 분과는 관광, 문화, 근대문화유산, 예술, 체육, 박물관 등 6개 분야로 구성된다.

또 시민안전 분과는 생활안전(CCTV, 방범, 재난), 교통(보행자 안전) 등 2개 분야, 도시환경 분과는 도시디자인, 도시재생, 공원, 경관 등 4개 분야로 각각 꾸려진다.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총괄 회의는 분기별로, 분과별 현안 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이처럼 목포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 기



최근 목포시가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화관광부 2차 심사에 대비한 현장 점검 모습.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반조성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목포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 주춧돌을 놓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민선 7기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정책기조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배석인 목포시 기획관리국장장은 "전문가 정책자문단 구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

되는 만큼 관련 조례가 먼저 제정돼야 한다"면서 "3월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에 자문단 설치 목적,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을 담은 조례를 상정해 조기에 자문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위판 서비스 개선과 공정경매, 마일리지 도입 등으로 목포수협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위판실적 1800억원대 달성했다. <목포수협 제공>

목포수협 당기순이익 3년새 170% 신장

목포수협이 3년새 당기순이익을 170% 신장, 전국 2위로 도약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부동산 경기침체, 수은 상승 등 바다환경 변화 등으로 전국 수협의 실적이 하락세인 것과 대조적이다.

목포수협(조합장 김정룡)은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지난해 업무 추진에 매진한 결과, 2016년 대비 지난해 당기순이익 170% 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실적은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상호금융사업의 연체율이 크게 늘었고, 해양스레기 문제와 수은 상승 등 바다환경 변화로 인한 경제사업까지 부진을 겪으면서 전국 수협이 실적 하락세인데 목포수협만 독보적인 실적을 거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가장 뚜렷한 성장세는 당기순이익으로 2016년 6억원에 그쳤던 것이 지난해 무려 16억원으로 170%(10억원) 성장한 부분이다.

상호금융사업은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 등의 노력으로 2018년 서울

1호점 독립문지점에 이어 2019년 2호점 보라매지점을 개점했다.

이에 힘입어 2016년 2869억원에 이르던 예탁금이 2019년 5068억원으로 77% 증가했다. 대출금도 2016년 2388억원에서 2019년 3998억원으로 67% 상승했다.

면세유류도 외지 대형트러들러 등을 유치해 2016년 180억원에서 2019년 305억원으로 125억원 늘었고, 위판금액은 2016년 1305억원에서 2019년 1803억원으로 38.2%(498억원) 상승하며, 2년 연속 1800억원대 위판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위판서비스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매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변화, 적정 여가 형성을 위한 신상품 개발 및 수협의 수매 전략, 위판마일리지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김정룡 조합장은 수협중앙회 경제사업평가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전남 최초 선원공급자회사 설립, 제2기 조합운영 자문위원회 결성, 서울 보라매지점 개점 등 사업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의 맛 세계화 박차...미식여행 메카로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 관광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가운데, 목포시가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대한민국 입맛을 사로잡은 '목포의 맛 세계화'에 주력한다.

시는 연초에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조직으로 '맛도시팀'을 확대 개편하고 글로벌 맛의 도시 목포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는 대한민국 최고 남도 맛의 본원인 목포의 맛을 기본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맛을 더해 목포를 전 세계인이 찾는 미식여행의 메카로 육성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목포의 맛과 음식문화에 전문성을

키우고, 음식을 관광자원화하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한다.

목포 음식을 주테마로 하는 음식관광 체험 행사를 발굴하고 전국목포요리경연대회(가칭)와 전문가의 단품 메뉴 개발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 수용태세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미식도시 수준에 걸맞은 외식문화 조성에도 주력한다.

또 '오래갈 미래의 도시, 슬로시티 목포'에 걸맞게 슬로푸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목포만의 특성을 담은 슬로푸드 발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